



건축사자격 및 특별전형 실시

건설부, 1차 5월20일

新築建物 등 특색 돋보여

서울市 都市設計制度 도입으로

서울시가 짜임새 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 도입 실시하고 있는 도시설계제도가奏効, 현재 을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건설되고 있는 건물들이 나름대로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중구 을지로3가에 건립된 七寶物山빌딩(지하2·지상9층)의 경우 1층에 보행자를 위한 회랑 보도가 만들어져 있고 을지로3가의 朝鮮屋 자리엔 회랑 보도가 있는 지하1·지상5층짜리의 건물이 들어선다. 이어 을지로2가에 신축될 지하4·지상20층짜리의 서울투자금융사옥 앞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이 만들어 진다.

잠실대로변의 경우 도시설계에 맞춰 신축이 허가된 건물은 △상업은행 전산센터 △동일방직사옥 △서울신탁은행전산센터 등 3개 건물이다. 국립경기장으로 연결되는 잠실지구 간선도로변에 신축될 건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건물 앞에 널따란 휴식공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설계란 개별건물이 아닌 가로변 일정구역의 개발모형을 만들어 이에 맞춰 개별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을지로 등 4개 간선도로변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도시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을지로·종로·세종로·태평로·잠실대로변 등 5개 도로변이며 테헤란로·김포가도·신촌로터리·개포·가락지구 등 5개 지역은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영등포지구·청량리·목동지구·대학로 등에도 도시설계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설계 적용지역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다.

구 분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1. 시험일자	제1차 : '84.5.20 제2차 : 추후개별통지	필기 : 좌동 실기 : 좌동
2. 시험장소	서울특별시(수험표 교부시 통지)	좌 동
3. 응시자격	건축사법 제14조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법 제16조에 의한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동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건축사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동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4.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건축구조(필기) 건축시공(필기) 건축법규(필기)	○필기시험 건축구조 건축계획
	○제2차 시험 건축계획(필기) 건축설계(실기)	○실기시험 건축설계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1984.4.6-4.20(15일간)	좌 동
나. 교부 및 접수기간	서울특별시, 직할시, 각도청 민원실	좌 동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 및 면허신청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무료배부) 1통
나. 수수료	○1,500원(정부수입인지첨부)	좌 동
다. 사 진	○3개월내 촬영한 사진 (3cm×4cm) 3매	좌 동
라. 회신용봉투	○우편번호·주소·통반·성명기재 및 400원우표 첨부한 봉투 2매 (주소지변경시 즉시 통보요)	좌 동
7. 수험표교부	○1984.5.4(개별통지)	좌 동
8.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1984.6.25 예정 (개별통지 및 제2정부청사 개시판 게시)	○필기시험 좌 동
	○최종합격자 발표 1984.9.30예정(개별통지 및 제2정부종합청사 개시판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좌 동
9. 기 타	○시험일 7일전까지 수험표를 받지 못한자는 접수처에 문의할 것	좌 동

단열시공기준 대폭 강화

건설부는 건축물의 단열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건축법시행 규칙을 고쳐 건축물바닥 단열재사용 기준의 열관류율을 종전 1.0에서 0.5로 강화했고 공동주택 벽체는 0.5에서 0.4, 가구별 난방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의 온수 온돌 바닥인 경우에는 1.0으로 열관류율 기준을 신설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밖에 건축물 준공검사때 구내통신선로 설치를 확인케 하여 전화시설을 사후 설치하는데 따른 건축물의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다.

열관류율: 1㎡당 섭씨 1도 차이가 있을때 시간당 Kcal 만큼 흘러나가는 열로서 숫자가 작을수록 단열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단열재로 스티로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열관류율 1.0에 맞추려면 두께가 30mm, 0.5일 때는 50mm, 0.4일 때에 70mm를 써야된다.

廣域행정연합체구성 필요

国土開發研, 수도권문제 방안 제의

国土開發研究院은 수도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廣域行政聯合체構成을 제의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경제부처 합동연수회에 제출한 수도권문제토의자료에서 서울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은 都農의 구분없이 동질공간화 되고 있다고 지적, 서울과 주변 경기도의 읍과 군을 묶은 광역행정연합체를 신설하여 도시계획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인구집중 趨勢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오는 90년의 서울의 인구는 1천196만명으로 전국의 27%, 수도권 인구는 1천874만명으로 전국의 42.3%로 늘어나고 2천년에는 서울이 1천558만명(31.1%) 수도권 2천411만명(48.2%)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난 6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주민세신설 △서울의 공장 신·증축억제 △그린벨트지정 △지방학생 서울전입억제 △수업

료 입학금의 차등제 실시 △대학예비고사 학구제도입 등 각종 수도권인구 소산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거의 實效를 거두지 못해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인구소산책이 이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계획만 수립한 뒤 실제 추진이 안된 부분도 있고 △수도권인구억제시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됐으며 △각분야의 中樞機能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인구의 지방분산책이 効果的으로 유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은 분석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특히 서울시 자체의 근시적 자기중심적 시책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도권문제 해결에 때때로 역행했고 중앙정부의 시책이 소극적이고 부처간에 일관성이 없었던 점 등도 수도권인구 소산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수도권정비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 고위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大圈域으로 나눠 開發

건설부,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

정부는 서울도심지에는 앞으로 21층 이상의 고층빌딩을 짓지 못하게 하는 등 도심권을 5대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기능별로 5대권역으로 나눠 △서울시와 의정부시 구리읍 등 서울북부 경기도 일부를 이전촉진 지역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고교 이상의 각종학교 신·증축, 작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의 공장 신·증축 3만㎡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판매시설의 신·증축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인천·부천·수원·안양·오산 등 한강이남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금지하고 이전촉진권역에

서 옮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반월공단 등에서 수용키로 했다.

또 △가평·청평·이천·용인·長湖院·여주 등 북한강 상류지역은 자연보전 지역으로 묶어 1만㎡ 이상의 택지조성 간척사업 3만㎡ 이상의 공단조성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장 증축, 공공시설, 판매시설 100㎡ 이상의 毒劇物 취급소 설치가 금지된다.

시안은 또 △江華·汶山·동두천 연천 抱川 등 서울북부 경기도 일부를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화를 유도하는 사업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장 신·증축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수도권지역에는 공장 뿐만 아니라 대학 분교 및 대학학생증을 일체 금지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개발유도권역을 최소화, 당초 포함돼 있던 용인·이천·長湖院·오산을 제외시키고 송탄·평택·안성·安伸·莞安·朝岩 등 경기도 최남단 일부지역으로 축소 조정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되는 공장의 수용이 끝나면 오는 86년부터 개발유도권역 자체를 폐지시킬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 안의 △30만㎡ 이상 택지 △100만㎡ 이상의 공업단지 △10만㎡ 이상의 재개발사업 등엔 7월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실시, 인구집중유발사업을 사전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자투리땅에 新築허용키로

서울市 아파트地域 개발 위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로 고시돼 묶인 지역 중 아파트를 짓기가 어렵거나 부적당한 자투리땅을 규제에서 풀어 다른 건물을 짓도록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내 개발잔여지 처리대책을 마련, 전체 면적이 공동주택건립 최소규모인 3천㎡(900평) 이하이며 대지폭이 30m 미만인 지역, 아파트건립 사업시행자지정 후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사업자 지정이 해제된 지역등을 지구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이미 양호한 주택이 밀집돼 있어 보존이 바람직한 지역,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대형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 평균소음이 75데시벨(db) 이상이거나 고가도로-대로변 등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 일조시간이 짧은 지역도 규제를 풀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4월부터 전담반을 구성, 자투리땅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뒤 아파트건립에 부적당한 곳을 선별하여 해제 조치키로 했다.

개발잔여지로 불리는 이들 자투리땅은 아파트를 짓기 곤란한 지역인데도 장기간 고시에 묶여 고물 처리장, 쓰레기장 등으로 사용돼 주변 환경을 해치는가 하면 토지 이용이 불가능해地主들의 민원을 불러 일으켜 왔다.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지구로 묶여 있는 곳은 모두 14개 지구 1천273만 6천㎡(385만 9천393평)이며, 이 가운데 자투리땅은 54만 6천㎡(16만5천454평)이다.

자투리땅이 아파트지구에서 풀리면 땅 주인은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관광호텔 13개 들어서

서울시내 88올림픽 대비

서울시내에 13개 호텔(객실 2천5백96개)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東洋高速 그룹의 우창건설이 마포구 도화동 39의 5 가든호텔 맞은편에 지하5층 지상34층의 소피텔호텔을 신축하는 등 13개 관광호텔이 건설중이거나 건립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호텔이 들어서면 서울시내 호텔규모는 현재의 54개 호텔 1만 2천 1백33개 객실에서 67개 호텔 1만 4천 7백29개 객실로 늘어난다.

건설중이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들 호텔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피텔호텔-올해 착공, 86년에 완공예정.

▲ 라마다 르네쌍스관광호텔-서대문구 홍은동 202의 1 백련사 옆에 지하 1층 지상 8층 객실 3백80개 규모로 세워지며, 현재 설계중.

▲ 한남관광호텔-한남레저가 용산구 한남동 542의13 한강블링장 옆에 지하 4층 지상17층 객실 3백3개 규모로 건립하며, 연내에 착공한다.

▲ 서울캐피탈관광호텔-주식회사 신압이 용산구 동빙고동 310의1 청화아파트단지 앞에 지하 3층 지상12층 객실 3백10개의 호텔을 건설중.

▲ 뉴월드관광호텔-대주관광이 강남구 삼성동 112의 4 삼릉공원북단에 지하 3층 지상10층 객실 1백93개 규모로 짓고 있으며, 85년 8월 완공예정.

▲ 인터내셔널호텔-한일합섬 그룹의 한효개발이 강남구 서초동 산 4의 28 말죽거리 북쪽에 지하 3층 지상13층 객실 1백87개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 화랑관광호텔-화랑산업이 강동구 천호동 425의 5에 지하 2층 지상12층 객실 1백64개 규모로 오는 8월 착공, 86년 8월 완공할 예정.

▲ 경남관광호텔-동대문구 장안동 48의10에 짓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10층 객실 1백 8개, 오는 6월 완공 예정.

▲ 호텔선-강남구 청담동 53의10 영동교남단 로터리 부근에 지하 2층 지상10층 객실 1백 7개 규모로 지을 계획.

▲ 유니버스관광호텔-창원 진흥기업이 천호대교 남단 구천호동 사거리 부근에 지하 2층 지상 8층 객실 1백 개 규모로 짓고 있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

▲ 남부관광호텔-구로구 구로동 1127의 3 구로공단 입구에 건립 중이며, 지하 3층 지상11층 객실 83개. 내년 말 완공된다.

▲ 한양관광호텔-구로구 시흥동 986의 4 옛 구로구청 임시청사 건물을 객실 81개의 호텔로 개조 중이다. 오는 4월 완공 예정.

▲ 크로마호텔-강남구 청담동

乙支路에 大型건물 신축

재개발지역에 35층 규모

住宅公社가 시행하는 을지로2가 재개발사업지구에 35층짜리 등 대형 건

물이 세워진다.

주공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 281억 원을 투자하게 될 을지로2가 16, 17지구 재개발사업은 오는 4월초 착공 86년 9월까지 이 지역에 35층, 27층, 22층의 대형건물 3동(연건평 7만 9천평)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주공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을지로2가 16, 17지구 2만 7천960㎡(8천458평)의 대상지역 안에 있는 4층 이상 건물 20동과 3층 이하 158동 등 178동(연건평 1만 1천291평)을 모두 철거, 86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대형 건물과 녹지지역 주차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주공은 이미 지난 2월 말 열리는 건축물과 대상토지 소유자에게는 새로 들어설 건물에 권리를 이전시키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건물 분양을 실시하기로 하고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裁決節次를 마쳤다.

주공은 당초 지난해 9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의 보상 및 매수협약이 안돼 6개월 가량 공사착수가 지연됐다.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총 6만 2천 935㎡ 가운데 건물(3만 7천325㎡)의 경우 80%인 2만 9천980㎡는 새 건물완공 후 분양받기로 했으며 8.6%인 3천51㎡는 매각키로 하는 등 전체의 88.6%가 사업기공을 동의했고 토지(2만 5천610㎡)의 경우는 88.2%가 기공동의를 했다.

청암 스튜디오 이전

각종 건축작품사진 촬영·제작

건축작품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임정의건축사진연구소(스튜디오靑岩)가 지난달 말경 이전했다(중구 충무로 3가 51-6 도봉빌딩205호 TEL 273-3363).

스튜디오 청암에서는 건축작품촬영 외에 건축모형, 투시도, 조감도도 촬영하며 지원명, 부루췌어 작품집에 사용될 사진도 제작한다. 또 현상설계용 도면사진제작과 각종 건축관계 슬라이드 등도 제작하고 있다.